유럽 민주주의 위기와 그 대안으로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 아이슬란드 해적당 사례를 중심으로 -

학 과 :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성 명 : 박 건

유럽 민주주의 위기와 그 대안으로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아이슬란드 해적당 사례를 중심으로

박 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적당의 기원
Ⅲ. 해적당의 운영원리
Ⅳ. 독일 해적당과 아이슬란드 해적당 비교
Ⅴ. 나오며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표는 유럽 민주주의 위기에서 대안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사례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먼저 해적당의 공통적 운영원리인 '액체 민주주의(Liquid Democracy)'와 '리퀴드 피드백(Liquid Feedback)'을 통해서 해적당이 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유럽 민주주의 위기의 대안으로서 적절한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독일 해적당과 아이슬란드 해적당을 비교해, 전자에 비해 후자가 원내 정당에 진출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는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 결과로, 먼저 운영원리인 액체 민주주의와 리퀴드 피드백은 비효율성의 문제, 디지털 격차를 이용한 소수 지배 체제의 등장 가능성, 부패와 로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네트워크 체제 운

영의 이점인 책임감과 신뢰의 분배와 액체 민주주의의 투표권의 위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통해 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액체 민주주의는 유럽 민주주의 위기의 대안으로서 적실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사회, 정치, 문화적 구조는 높은 인터넷 사용자 비율, 활성화된 시민사회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풍부한 경험, 전 국민이 참여한 크라우드소싱 개헌의 경험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현실에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적 분위기가 만연한 정치 구조 속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밝다. 또한 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 해적당이 직접 민주주의를 정치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이슬란드의 직접 민주주의적인 정치 구조를 더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정치적 미래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한계로서 정치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그 해결책으로 좌파-녹색당을 반면교사로 삼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활동을 서로 연동시키면서 지지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한다.

주제어: 유럽 민주주의의 위기, 직접 민주주의, 액체 민주주의, 리퀴드 피드백, 아이슬란드 해적당

Ⅰ. 들어가며

최근 유럽의 정치지형에는 기존의 대의 민주주의와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참여를 갈망하는 정치세력들이 득세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이슬란드의 해적당을 비롯하여, 스페인의 포데모스,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체코의 새벽-국민연합,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등과 같은 신생 포퓰리즘 정당들이 등장해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의 브렉시트에 이어, 이민 문제를 중심으로 EU 탈퇴를 요구하며 세력을 형성한 극우 정당들 또한 지지 세력을 규합

하고 있다.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결선투표까지 올라간 국민전선의 르펜 후보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에서는 참여를 위한 열망을 표출하며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정당들이 지지를 얻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후퇴시키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양극단의 정치형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현재 유럽의 민주주의에는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담론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태영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시민권, 주권, 대의제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파악한다. 첫째, 시민권의 위기다. 현재 세계화의 가속화된 흐름 속에서 국민국가가 설 자리를 잃으면서 그 내부의 시민과 시민권의 존재양식에 위기를 가져왔다. 국가의 위기에 따른 시민권 자체의 약화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정체성과 관련된 시민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라고 분석한다. 둘째, 주권의 위기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국제기구의 형성과 국제레짐의 형성으로 인한 등장한 다양한 국제규범은 국민국가에서 배타적으로 보장되었던 주권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 셋째, 대의제의 위기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20 세기까지 지속되어 온 민족의 단일성과 계급의 단일성이라는 전제가 깨졌다. 새로운 사회, 경제적 갈등요소와 계급 분할로 인해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며 대중들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대하며 대의제의 위기가 제기된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은 국가의 이익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국적 기업, 비국가 행위자들이 등장하게 만들어서 대의제의 위기를 가속화했다고 말한다.

홍태영은 유럽 민주주의 위기를 정리하며, “시민권의 위기에 따른 근대적 정치주체의 위기, 주권의 위기에 따른 일국적 국가권력의 한계, 그리고 대의제의 위기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1)]

---

1) 홍태영. "유럽적 근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환." 국제정치논총, 53.3 (2013.9): pp.47-55.

이러한 유럽의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근대정치의 위기, 구체적으로는 정당정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변화의 이미지를 내세우며 기성 정당정치에 대항하는 정치 세력으로 2006 년 스웨덴에서 '해적당'이 처음 등장했다. 이들은 정보화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직접 민주주의와 정보 공유를 중심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0 년 4 월에는 국제적 연대조직인 해적당 인터내셔널(Pirate Parties International, PPI)이 공식 출범했고, 2011 년 의회 선거에서 독일도 의회에 진입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2]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도 해적당이 2013 년에 처음 의회에 입성한 이래, 2016 년, 2017 년 선거에서 3 회 연속으로 의회에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당은 정보화 기술에 기반을 둔 '액체 민주주의(liquid democracy)'와 '리퀴드 피드백(Liquid Feedback)'이라는 방식을 이용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에 옮기며 유럽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과연 아이슬란드 해적당이 유럽 민주주의의 위기를 타계해나가기 위한 대안으로서 얼마나 적절성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해적당과의 비교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한다. 독일 해적당이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더 이상 의회에 진출을 못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왜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2017 년 선거에서 지지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의회 진출에 성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아이슬란드 해적당이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구체적 사례 분석에 앞서, 해적당의 기원인 스웨덴 해적당과 그 사상적 근원과 해적당의 공통적인 운영원리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이 부분은 해적당의 보편성에 주목하여, 해적당의 강령, 액체 민주주의 시스템 등의 운영원리가 어떠한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앞서 분

2) 김면회, 정혜욱. "독일과 스웨덴 해적당 발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유럽학회. 30.2 (2012): pp.58-59.

석한 해적당 운영원리의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가 아이슬란드 해적당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아이슬란드 정치 구조에서 직접 민주주의로서 유럽 민주주의의 위기의 대안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해적당과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선거 동향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이슬란드 해적당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왜 독일 해적당은 쇠퇴하고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거 동향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지지율이 2016 년 선거 이후로 점차 하락하는 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현상이 과연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미래 전망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모색해볼 것이다. 나아가 직접 민주주의의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해적당과 아이슬란드의 정치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사례가 유럽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Ⅱ. 해적당의 기원

가장 처음 등장한 스웨덴 해적당은 2000 년대 초 해적운동(pirate movement)에 의해 촉발되어 2003 년에 등장했다.[3] 2005 년 7 월에 유럽의회의 권고에 따라 스웨덴 내의 저작권법이 강화[4]되자 당시 세계적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이러트베이(Pirate Bay)'의 창설자인 팔크빙예는 이에 반대하는 사이트를 개설했고, 많은 지지자를 획득했다. 이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2006 년에 스웨덴 해적당을 창당했다. 창당 이후 '파이러트베이(Pirate Bay)'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압수수색 사건으로 더 많은

3) Erilngsson and Persson, "The Swedish Pirate Party and the 2009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Protest or Issue Voting?" *politics* 31.3 (2011): p.122.

4) 스웨덴 정부는 P2P를 통한 파일 공유를 금지하는 법을 공표했다.

지지 세력을 규합했다. 스웨덴 해적당은 지적재산권법 개정(규제 완화), 특허권 폐지, 온라인에서 사생활 보장권에 대한 존중 등을 정당의 핵심 이슈로 제시하고 당의 목표를 원내 다수당으로 삼고 있다.[5] 이러한 정당의 기조는 전 세계의 해적당에서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요소들이다.

스웨덴 해적당이 2006 년 의회선거에 처음 참가해서 0.63%을 얻었고, 2010 년에는 0.65%를 얻었다. 이는 원외 정당 가운데는 가장 많은 득표율이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의 화제성에 비해서 많은 득표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2006 년과 2010 년의 핵심 이슈가 경제적 문제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앞서 말한 파이러트베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2009 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7.13%의 지지를 받으며 유럽의회 의원을 2 명 배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결과에 대해 유럽의회 투표율이 45.53%로 낮기 때문에 그 성과가 확대해석 되고 있는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지만, 다른 군소 정당들을 다 제치며 높은 득표율을 보인 스웨덴 해적당의 성장세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9 년 이후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고, 당원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6]

이러한 해적당의 사상적 연원은 하버드대 교수인 존 페리 발로(John Perry Barlow)가 1996 년에 발표한 '사이버스페이스의 독립선언문(A Cyberspace Independence Declaration)'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오늘날 해적당의 정신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 선언문은 온라인 공간을 오프라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국가와 시장의 개입과 통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급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이 나온 배경에는 온라인상의 표현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존재한다. 하나는 1996 년 2 월의 미국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제정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화의 상징적 회의인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개최다. 전자는 인터넷에 대한

---

5) 장선화. "정보사회 이슈정당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국제정치논총, 52.3 (2012.9): p. 432

6) 김면회, 정혜욱. 2012. p.64.

국가의 검열을 허용하는 법이었다. 이것은 온라인상의 정보공유에 대한 제약 가능성을 암시하고, 온라인상에서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었다.[7]

Ⅲ. 해적당의 운영원리

1. 액체 민주주의(Liquid Democracy)와 리퀴드 피드백 (Liquid Feedback)

3 장에서는 앞서 정리한 해적당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운영원리를 분석함으로써 과연 이러한 운영원리가 유럽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적실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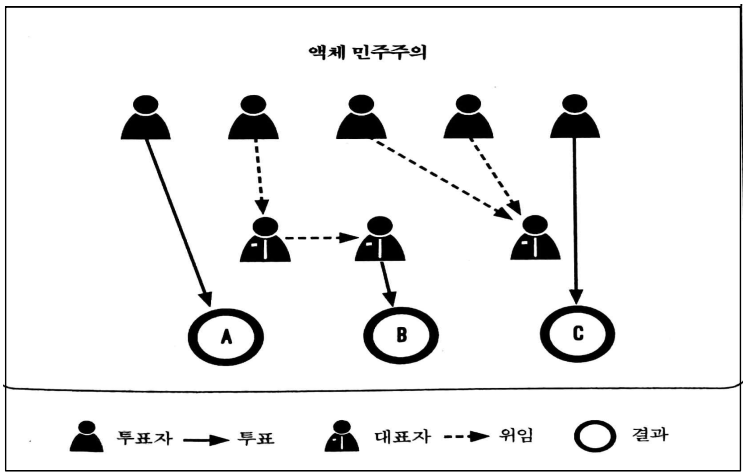
액체 민주주의, 혹은 흐르는 민주주의(Liquid Democracy)'는 해적당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대의 민주주의)를 탄력적인 토론과 투표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담은 개념이다.[8] 액체 민주주의의 방식을 다른 말로 '위임 투표(Proxy Voting)'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누구에게나 토론을 하고 실시간으로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해적당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여과 없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안건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자신의 투표권을 위임해서 대리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리 투표행위의 위임은 여러 사람에게 추이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즉, 액체 민주주의 시스템은 신뢰 관계망과 임시 대표 원칙의 바탕

---

7) 장우영, "온라인 이슈와 해적당의 정치세력화." 사이버 사회문화. 4.2 (2013): p. 68.

8) 장우영, 2013, p.75.

위에 운영되는 제도인 것이다.[9] 그 구체적 작동 방식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액체 민주주의(출처: 로맹 슬리틴, 엘리사 레위스, 2017, p.77.)

다음으로 '리퀴드 피드백(Liquid Feedback)'은 액체 민주주의 제도를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오픈 소스 도구다. 이 도구는 참여 인원이 많아서 일반적인 포럼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하여 정당과 사회단체 등이 인터넷을 통한 의견제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10] 구체적인 구현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투표권을 위임할 대표를 뽑는 단계다. 플랫폼에 가입하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직접 투표하거나, 유능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리퀴드 피트백은 말 그대로 유연성이 핵심이다. 따라서 언제든 위임한 투표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11]

두 번째는 대표들이 안건의 발의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단계다. 이렇게 선출된 대표들과 개인들이 네트워크에서 안건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다. 발의는 사용자의 10%의 지지와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건에 대해 추가, 수정, 삭제 등의 과정을 거친

9) 로맹 슬리틴, 엘리사 레위스. 『시민 쿠데타』, 북이십일, 2017, pp.75-81.
10) 장우영, 2013, p.76.
11) 로맹 슬리틴, 엘리사 레위스, 2017, p.78.

다. 이렇게 10%의 지지가 모이면 바로 토론으로 넘어간다. 이는 전략적 동기를 가지고 제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상정된 여러 대안에 대해서는 선호를 드러내는 투표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하나의 안건을 뽑는 슐츠 방법(Schulze Method)의 수정 방식으로 표결한다.[12)]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액체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신기술이 필요하다. 바로 '블록체인(Blockchain)'이라는 것이다. 이 기술은 온라인상의 모든 데이터를 중간 매개체 없이 저장하는 기술이다. 중앙 관리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각 사용자가 체인이 만들어진 후에 실행된 모든 거래기록을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저장된 데이터는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조작을 위해서는 모든 사용자가 보유한 체인에 연결된 모든 블록을 수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조작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13)]

2. 유럽 민주주의 위기의 대안으로서의 적실성 평가

그렇다면 이렇게 리퀴드 피드백을 도구로 사용하는 액체 민주주의의 장점은 무엇인가? 첫째, 자연스러운 위임(delegation)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위임을 할지, 자신이 투표할지, 또한 자신이 위임한 투표권을 다시 가져올 지는 철저하게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둘째,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리퀴드 피드백을 통해 제시된 안건에 대해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언쟁이 절제되면서 생산적인 안건들이 도출될 수 있다.[14)]

하지만 이 시스템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제도의 특성 상 '숙의'의 과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교착상태가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 다음으로, 특정인이 적지 않은 양의 대리 투표권이 수집할 수 있다. 디지털 격차를 바탕으로

12) 장우영, 2013, pp.76-77.
13) 로맹 슬리틴, 엘리사 레위스, 2017, pp.78-79.
14) 장우영, 2013, p.77.

형성된 새로운 소수 집단 지배 체제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 로비의 문제가 네트워크의 확장성으로 인해 매우 중대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15)]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 액체 민주주의는 평가절하 돼야 하는가? 이를 평가하기 위해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한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민주주의의 4 가지 모델을 연구한 프랭크 헨드릭스(Frank Hendriks)의 분류에 따르면 합의제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직접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액체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시하며 집단자치, 집단소통, 숙의 등의 과정이 강조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에서의 공공정책 결정은 개인의 선호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을 넘어 통합과 의견의 교환, 관여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을 중시한다고 말한다.[16)]

또한 벤저민 바버(Benjamin Barber)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를 강조할 경우, 참여와 통치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17)]

위의 두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분석해보자. 헨드릭스와 바버는 공통적으로 참여 민주주의에서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소통, 토론을 강조하고 있다. 액체 민주주의와 그 도구인 리퀴드 피드백은 이러한 모든 구성원의 직접적 참여와 토론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액체 민주주의는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

---

15) 로맹 슬리틴, 엘리사 레위스, 2017, pp. 79-80.

16) Hendriks, Frank, *Vital Democracy: A Theory of Democracy in 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윤종빈.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소고(小考)." 미래정치연구, 6.1 (2016.02): pp.145-146에서 재인용)

17) Barber, Benjamin.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윤종빈.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소고(小考)." 미래정치연구, 6.1 (2016.02): p.147에서 재인용)

주주의적 요소인 ‘위임 통치’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다소 희석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서 앞서 제시한 단점 중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위 두 학자의 주장을 통한 분석은 액체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인터넷 상의 네트워크의 장(場)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적실성을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남은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분야 전문가인 도미니크 시니어가 답한다. 그녀는 네트워크 체제 운영의 이점이 책임감과 신뢰의 분배라고 말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상의 결정에서 개인은 일부의 결정권 밖에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시스템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위임받은 대표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위임된 대리 투표권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다.[18)]

위에서는 전 세계 해적당의 공통적인 운영 원리를 중심으로 유럽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적절성을 평가해보았다. 뒤에 이어지는 4 장부터는 독일 해적당과의 비교를 통해서 아이슬란드 해적당이 다른 해적당에 비해서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이슬란드 정치구조와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해보고자 한다.

Ⅳ. 독일 해적당과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비교

1. 독일 해적당의 선거 동향 및 특징

1) 독일 해적당의 선거 동향

독일 해적당의 선거 동향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2006 년 정당이 창당된 이후부터 2009 년 웹사이트 차단에 대한 논쟁이 활성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2011 년까지의 시기다. 두 번째 시기는 2011 년 베를린 지방의회선거 이후 각 주의 선거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양적 팽창을 하던 시기다. 세 번째 시

18) 로맹 슬리틴, 엘리사 레위스, 2017, p. 80.

기는 2012 년 ~ 2013 년을 거치면서 당 내부적 갈등과 외부 문제에 기민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서 점차 지지율을 잃어가는 쇠퇴하는 시기다.

선거	득표율(%)	의석 수(석)	순위(등)
2009 주의회 선거 (헤센 주)	0.5	0	-
2009 유럽의회 선거	0.9	0	-
2011 베를린 주의회 선거	8.9	15	5
2012.3 주의회 선거 (Saarland state)	7.4	4	4
2012.5 주의회 선거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	8.2	6	5
2012.5 주의회 선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7.8	20	5
2013 연방선거	2.2	0	-
2014 유럽의회 선거	1.45	1	·
2016 베를린 주의회 선거	1.70	0	-
2017 주의회 선거 (잘란트 주)	0.70	0	-

<표 3> 독일 해적당의 선거 결과(2009 ~ 2017, 출처: 독일 해적당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Pirate_Party_Germany 검색일: 2017년 12월 10일))

스웨덴 해적당이 약세를 보이는 동안 독일의 해적당이 성장세를 확대하고 있었다. 2006 년에 창당된 독일 해적당은 2009 년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2009 년 유럽의회선거를 기점으로 이전의 2009 년 헤센 주의 지지율에 비해 두 배로 뛰며 급부상한다. 이 이후로 2009 년 독일 연방선거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2009 년에 초기 웹사이트 차단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해적당은 목

소리를 알리게 되었고, 덩달아 당원수도 1,476 명(2009 년 6 월)에서 11,500 명(2009 년 12 월)으로 급증하게 된다.[19)]

두 번째 시기는 독일 해적당의 가장 전성기다. 2011 년 의회선거를 통해서 찾아온다. 2011 년 9 월 18 일 베를린 지방의회 선거에서 8.9%의 득표율을 얻으며 최초로 15 명의 의원을 배출해 원내 정당으로 진입했다. 연이어 실시된 잘란트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7.4%의 지지율을 보이며, 4 명의 지방의원이 당선되었다.[20)] 그리고 2012 년 상반기의 선거들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려 제 3 당의 반열에 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3 년 당대표 베른트 슐뢰머와 정책국장 요하네스 포나더 사이의 당 운영에 대한 견해 차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미국 NSA 의 도청 스캔들 이슈에 대한 미비한 대응으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된다. 이후로 신뢰를 잃은 독일 해적당은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이후로도 이어졌다.[21)] 2014 년 유럽의회선거에서는 1.45%, 2016 년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는 2011 년 8.9%에서 1.7%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2017 년에는 잘란트 주의회 선거에서 0.7%의 매우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22)]하며 하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며 의회에 진입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더 이상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독일 해적당의 특징

그렇다면 이러한 독일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독일 해적당의 특징은 독일의 독특한 정치구조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김면회와 정혜욱은 이렇게 독일 해적당이 높은 지지율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독일 현대정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기존의 정치질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족과 부정기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19) 박설아, 류석진. "이슈정당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당학회보, 12.2 (2013.7): pp. 136-140.
20) 박설아, 류석진. 2013. pp. 138-139.
21) 장우영, 2013, pp.63-98.
22) 독일 해적당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Pirate_Party_Germany (검색일: 2017년 12월 10일)

새로운 대안 정치 세력 모색이라는 두 요인이 맞물리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독일 현대 정치의 전개 과정에서 독일 정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안적인 정치 세력 진영의 재구조화 과정이 해적당의 등장과 급성장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현상은 과거 녹색당의 등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23]

2.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선거 동향 및 특징

1)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선거 동향

선거	득표율(%)	의석 수(석)	순위(등)
2013	5.1	3	6
2016	14.48	10	3
2017	9.2	6	6

<표 4>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의회 선거 결과(출처: 아이슬란드 해적당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Pirate_Party_(Iceland) 검색일: 2017년 12월 10일)

아이슬란드의 해적당의 선거 동향을 설명하기 전에 아이슬란드가 등장하게 된 정치경제적 맥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아이슬란드의 선거에 따른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이슬란드에서 여러 신생정당이 나오기 전에 2008 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아이슬란드 정치지형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다. 1 인당 GDP 가 6 만 달러에 달하던 아이슬란드에는 GDP 의 9 배나 되는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스와 같이 국민이 금융세력의 도박 빚을 떠안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아이슬란드 시민들은 냄비와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 시위를 한 '프라이팬 혁명(pots and pans revolution)'이 발생한다.[24] 이로 인해 당시 총리였던 독립당의 '게이르

23) 김면회, 정혜욱, 2012, pp. 74-78.

24) 『한겨레 신문』,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3467.html (검색일: 2017년 12월 11일)

하르데(Geir Haarde)'는 2009 년 4 월 25 일에 조기총선을 결정하게 된다. 이 선거에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던 독립당은 제 2 당으로 밀려나고, 대신 사회민주연합-좌파녹색운동 연립정부의 좌파 간의 연정이 들어서게 된다. 이는 프라이팬 혁명에서 발현된 정부에 대한 불신에 기반 한 시민운동의 동력이 선거혁명으로 이전된 현상이다.[25]

이러한 정치사회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프라이팬을 들고 거리를 나섰던 사람 중 하나였던 시민운동가 비르기타 욘스도티르에 의해서 2012 년에 아이슬란드 해적당이 창당된다. 2013 년 선거에서 해적당은 의회에서 5.1%의 지지율로 3 석을 얻으며 창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의회에 진입했다.[26] 이들은 기존의 집권 보수 여당이 EU 가입협상을 동결하고, 2010 년에 만든 헌법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에 반기를 비판하며 지지 세력을 결집했다.[27]

결정적으로 아이슬란드 해적당이 주목을 받은 것은 2016 년 파나마 페이퍼 사건이 터졌을 때다.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사건은 파나마의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의 비밀문서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폭로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문서에는 세계의 정치인, 유명인들이 세무조사를 피해 재산을 은닉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문서에 당시 집권하고 있던 독립당과 진보당 간 우파연합 정부의 수상, 경제부 장관, 내무부 장관의 이름이 있었다.[28] 원래 기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태에서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2015 년 4 월부터 2016 년 4 월까지의 여론 조사에서 최고 4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 위를 기록했다.(<그림 2>참조) 이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을 계기로 2016 년 1 월에는 37.8%였지만 4 월에는 43%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이들은 새로운 헌법의 채택, 신뢰 회복과 부패 척결 등의 구호[29]를 내세우며 지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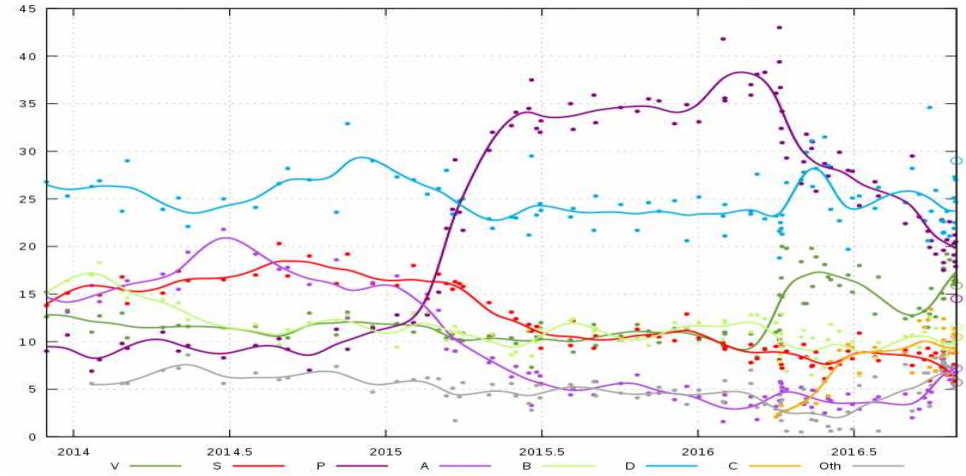
25) Leruth, Benjamin, "The Panama Papers could bring down Iceland's government and bring the Pirate Party to power." LSE European Politics and Policy(EUROPP) Blog. (2016.4.5.) p.1.

26) 아이슬란드 통계청. http://www.statice.is/statistics/population/elections/ (검색일: 2017년 12월 10일)

27) Leruth, Benjamin, 2016, p.2

28) Leruth, Benjamin. 2016. p.2.

을 높여갔다. 하지만 정작 본 선거에서는 14.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10 석을 획득하게 되면서 선거 전의 열기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30] 하지만 이는 전체 지지율로 3 당의 위치였고, 의회에 입성한 당원 수로는 공동 제 1 야당의 위치를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2016 년 선거 이후 해적당이 정부구성권을 얻으면서 최초의 해적당 출신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의견차로 정부구성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2016 조기 총선에서는 독립당(Independence Party), 개혁당(Reform Party), 그리고 신생정당인 밝은 미래당(Bright Future)이 연정을 구성하게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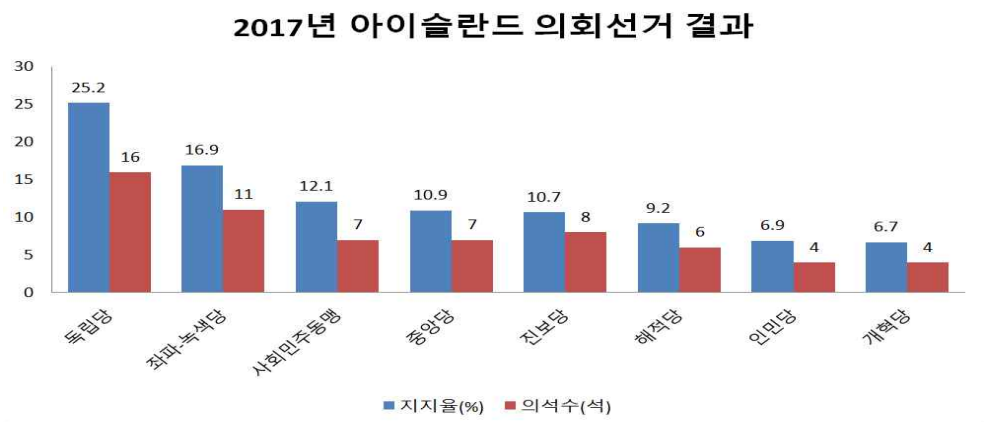
<그림 2 >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여론조사 결과(2014-2016)
(출처: 아이슬란드 해적당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Pirate_Party_(Iceland), 검색일: 2017년 12월 10일)

2017 년에 들어서 또 다른 스캔들이 벌어진다. 그것은 총리인 'Bjarni Benediktsson'의 아버지와 관련된 '소아성애자 스캔들(Paedophile Scandal)' 이다. 사건의 내막을 이렇다. 아이슬란드에는 범

29) 아이슬란드 해적당, https://piratar.is/english/election-manifesto-2016/ (검색일: 2017년 12월 11일)
30) 아이슬란드 통계청. http://www.statice.is/statistics/population/elections/ (검색일: 2017년 12월 10일)

죄자에 대해서 세 명의 추천서를 받으면 그들의 시민권을 회복시켜주는 "명예 회복"이라는 제도가 있다. 현 총리의 아버지가 2004 년에 자신 양딸을 12 년 동안 강간한 아동성애자에게 추천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이 밝혀지자 밝은 미래당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Serious breachc of trust)'시켰다고 말하며 연정을 깨뜨렸다.[31] 이로 인해 총선이 다시 치러지게 된 것이다.

2017 총선의 결과 해적당은 2016 년에 비해 5% 가량 줄어든 9.2%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의석도 4 석 줄어든 6 석을 획득했다. 이에 비해 좌파-녹색 정당은 튼튼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고른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16.9%로 11 석을 획득하며 2 위에 자리했다. (<그림 3> 참조) 정부구성권을 쥐게 된 좌파-녹색 정당은 독립당, 진보당과의 연정을 통해 좌파-녹색당의 총수인 'Katrin Jakobsdottir'가 총리로 취임했다.



<그림 3> 2017년 아이슬란드 의회선거 결과
(출처: http://icelandreview.com/news/2017/10/29/final-election-results-2017)

2)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특징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지지율이 2016 선거에 비해 다소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좌파-녹색당 등의 당들에 비해 지역기반이

31) 『BBC NEWS』, 15 September 2017, 'Iceland government collapses over paedophile furore", http://www.bbc.com/news/world-europe-41280080 (검색일: 2017년 12월 13일)

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2016 년 이후 기정 정치권과 부패에 대한 반사이익이 다소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율의 하락과 의석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3 년 연속으로 원내 정당으로 진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2013 년에 처음 집권해 3 석을 확보했을 때보다 2 배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에 비관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물론 한계는 존재하겠지만, 앞으로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미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본다. 그 이유는 독일 해적당과 다른 정치사회적 구조와의 상호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크게 3 가지 구조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아이슬란드의 높은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다.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과 세계은행, 유엔의 인구부서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Internet Live Stat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 년에 전체 아이슬란드 인구 329,425 명 중에서 328,803 명인 99.8%가 인터넷 사용자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서 인터넷 사용이라 함은 개인들이 집 혹은 다른 매체 등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유럽 내에서 최고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32] 그래서 인터넷에 기반 한 직접 민주주주의, 즉 디지털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조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2008 년에 벌어진 프라이팬 혁명 이후 많은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더 나은 레이캬비크(Better Reykjavik)[33]“라는 온라인 청원 사이트다. 이 사이트의 역사는 아이슬란드 코미디언이었던 욘 그나르(Jon Gnarr)가 최고당(Best Party)를 만들어 레이캬비크의 시장에 당선되면서 시작된다.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졌고, 이는 시민과 정부 간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했다. 욘 그나르는 시장으로서 온라인을 통한 참여형 정치를 추구했는데, 정부

32) Internet Live Stats 통계자료, http://www.internetlivestats.com/internet-users/iceland/ (검색일: 2017년 12월14일)

33) 레이캬비크(Reykjavik)는 아이슬란드의 수도이다.

의 연정 구성뿐만 아니라 정책 선정, 예산 배정과 집행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리고 차원의 사업 선정 또한 완전히 공개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34]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 덕분에 아이슬란드 시민들에게는 직접 참여하는 정치에 대한 친숙함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적당이 주장하는 시민권, 정보의 공유, 표현의 자유, 직접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도 쉽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Derek Lackaff 는 '새로운 상태(New Normal)'이라는 정치 문화로 규정한다.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기술적 이점을 활용해 기민하게 의견을 모으고 대응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35]

세 번째는 '크라우스소싱(Crowdsourcing)[36] 개헌'이다. 아이슬란드 헌법은 원래 덴마크 헌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1944 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헌법개정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2008 년 금융위기 이후다. 당시 큰 은행들이 채무불이행상태에 놓여 파산을 하게 되면서, 국가 전체에 심각한 경제침체와 정치적 불안을 야기했다.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은행법 개혁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운영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2009 년 새로이 등장한 첫 좌파 정부는 이 '크라우드소싱개헌'을 추진하게 된다.[37]

아이슬란드의 시민헌법을 위한 기본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되는 두 시민 의회를 구성하여 국가의 건국이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구해야 하 지향점을 논의 한다. 둘째, 비정치적인 시민 위원회를

---

34) Lackaff, D. Escaping the Middleman Paradox: Better Reykjavik and open policy innovation. Journal of eDemocracy & Open Government, 7(2), 2015. p. 139-141.

35) Lackaff, D. 2015, p. 137.

36) 크라우드소싱은 대중을 의미하는 Crowd와 외부자원의 활용을 의미하는 Sourcing의 합성어로, 개인이나 조직이 일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중으로부터 아이디어나 문제해결방식을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

37) 윤정인. "크라우드소싱에 의한 헌법개정 - 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3.1 (2017): p. 8-9.

선출하여 헌법 문안을 기초하도록 한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대중적 참여를 유도한다.[38]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된 시민헌법의 시도로 아이슬란드 전체가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다. 각 가정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아이슬란드의 가치와 미래를 두고 토론을 했고, 시민단체이 연합해 '개미집(Anthill)'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2009 년에 이러한 단체들과 개인들 1500 명이 모여 아이슬란드의 기본 이념, 가치, 민주주의, 교육, 경제, 환경 등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했다. 그리고 2010 년 11 월에는 인구비례와 직업, 계층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고려해 남녀 시민 천여 명이 뽑혔다. 이들은 시민의회를 구성해 여러 규정들을 마련했다. 이들은 헌법 개정에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5 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헌법의 성공적인 개정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서로 긴밀한 협조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성 덕분에 로비의 영향력과 금융권의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39]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헌법은 시민 주도의 국민투표와 같은 진보적인 직접 민주주의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치러진 2012 년 10 월 20 일의 국민투표에서 67%의 찬성표를 받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그 세부 항목 중에는 천연자원의 국가 소유권 인정이 83%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찬성도 73%나 되었다.[40]

하지만 제도 정치권에 대한 불만에서 생겨난 크라우드소싱 개헌안은 역설적으로 다시 제도 정치권에 의해 제지당하게 된다. 기존의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헌법 개정안은 해적당이 2016 년에 헌법 개정안의 채택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38) 로맹 슬리틴, 엘리사 레위스, 2017, pp. 112-113.
39) 로맹 슬리틴, 엘리사 레위스, 2017, pp. 114-116.
40) 로맹 슬리틴, 엘리사 레위스, 2017, p. 117.

앞서 세 가지 구조적 요인, 즉 직접 민주주의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인터넷 기반, 더 나은 레이캬비크와 같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직접 참여의 구조적 여건 조성, 크라우드소싱 개헌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이슬란드에는 독일 해적당이 가지지 못한 사회정치적 구조와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과 구조가 아이슬란드 해적당에게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접적 참여를 통한 의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헌법 개정안 채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등은 다시금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사회적 구조와 문화를 더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해적당과는 다르게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미래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된다.

Ⅴ. 나오며

지금까지 해적당이 가지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과연 해적당이 직접 민주주의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아래, 해적당의 운영원리인 액체 민주주의와 리퀴드 피드백이 얼마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특히 이 운영원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비효율성의 문제, 디지털 격차를 이용한 소수 지배 체제의 등장 가능성, 부패와 로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았다.

먼저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헨드릭스와 바버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말했다.

다음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네트워크 체제 운영의 이점인 책임감과 신뢰의 분배를 통해 설명했다. 네트워크상의 결정에서 개인의 결정권과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위임 통

치의 특성상 위임한 권한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의 문제는 이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아이슬란드 해적당 사례에 적용하여, 아이슬란드의 사회, 정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 정치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했다. 그리고 독일과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선거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양자 간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했다.

아이슬란드의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인 직접 민주주의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높은 인터넷 사용률, '더 나은 레이캬비크'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시민사회에 의해 형성된 직접 민주주의적 사회 분위기, 크라우드소싱 개헌의 경험 등을 통해 독일 해적당과의 차별성이 보인다. 이에 비해 독일 해적당은 독일 현대정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기존의 정치질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족과 부정기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새로운 대안 정치 세력 모색이라는 두 가지 요인의 결합으로 쇠퇴하고 말았다.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가 서로 상호연관성을 맺으며 상생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즉 구조적 요인이 아이슬란드 해적당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확대해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아이슬란드 해적당이 액체 민주주의와 리퀴드 피드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가 더 강화될 수 있는 상생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적당의 미래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 또한 분명하다.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2017 년에 집권한 좌파-녹색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좌파-녹색당은 지방에서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튼튼한 지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전선할 수 있었다. 물론 1999 년에 창당한 좌파-녹색당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온라인상의 활동을 넘어서서 활동 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장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서 지역적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로맹 슬리틴, 엘리사 레위스. 『시민 쿠데타』, 북이십일, 2017,

2. 논문

김면회, 정혜욱. 2012 “독일과 스웨덴 해적당 발전에 관한 비교연구.”한국유럽학회. 30.2 pp.58-83

박설아, 류석진. 2013. 이슈정당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당학회보, 12(2), pp. 127-155.

윤정인. “크라우드소싱에 의한 헌법개정 – 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3.1 (2017): pp. 1-24.

윤종빈. 2016.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소고(小考). 미래정치연구, 6(1), 141-156.

장선화. 2012. 정보사회 이슈정당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국제정치논총, 52(3), pp. 425-445.

장우영, 2013“온라인 이슈와 해적당의 정치세력화.” 사이버 사회문화. 4.2 pp.63-98.

홍태영. 2013. “유럽적 근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환.” 국제정치논총, 53(3), pp. 39-68.

Erilngsson and Persson, 2011. “The Swedish Pirate Party and the 2009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Protest or Issue Voting?” *politics* 31.3.

Lackaff, D. 2015. Escaping the Middleman Paradox: Better Reykjavik and open policy innovation. Journal of eDemocracy & Open Government, 7(2), pp. 137-161.

Leruth, Benjamin, 2016. “The Panama Papers could bring down Iceland’s government and bring the Pirate Party to

power." LSE European Politics and Policy(EUROPP) Blog.

3. 신문기사
한겨레 신문,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3467.html
(검색일: 2017 년 12 월 11 일)
『BBC NEWS』, 15 September 2017, 'Iceland government collapses over paedophile furore",
http://www.bbc.com/news/world-europe-41280080
(검색일: 2017 년 12 월 13 일)

4. 인터넷자료
독일 해적당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Pirate_Party_Germany
(검색일: 2017 년 12 월 10 일)
아이슬란드 통계청.
http://www.statice.is/statistics/population/elections/
(검색일: 2017 년 12 월 10 일)
아이슬란드 해적당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Pirate_Party_(Iceland)
(검색일: 2017 년 12 월 11 일)
Internet Live Stats 통계자료,
http://www.internetlivestats.com/internet-users/iceland/
(검색일: 2017 년 12 월 14 일)